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진안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진안군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을별 접수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은 별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구비서류 사전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기준 준수 등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준열 진안군의원,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천반산과 죽도 관련 추진상황·대형 산불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가 선거구)은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반산과 죽도 명승 지정 관련 추진상황 및 인근 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조준열 의원은 "천반산과 죽도 일원은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며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뿌리내린 곳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문화재 지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천반산과 죽

도 명승 지정 관련 추진상황과 국가문화재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북·강원 산불과 최근 백운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언급하며, "임야 비율이 70%가 넘는 진안군의 경우 봄·가을철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예방 홍보와 주민의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준열 의원은 "대다수의 산불 발생은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의 도하지 않은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추가 홍보 실시와 더불어 산불 진압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동참을 독려"하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우규 진안군의원,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페타이어 처리대책·유기동물 보호·복지 정책 강화돼야"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은 지난 11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페타이어 처리대책, 유기동물 보호회 체계 및 덕천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우규 의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페타이어는 제조업자 등에게 재활용 의무가 있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야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해외 수출 제한에 마쳐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주범이자 불법투기와 방치로 인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페타이어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모순되게도 반려동물이 증가할수록 동물

유기와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한 만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분뇨악취와 인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마령면 덕천지구 전원마을을 언급하며 청정 환경을 찾아 진안에 들어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주민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근 사업장들의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물질 저감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우규 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그 어떤 대책보다 진안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진안군 인구 소멸을 막는 첫 걸음"이라며 "폐적한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믿고 귀촌한 주민들을 위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누리파크에서 봄 한껏 느껴보세요"

튤립 광장 조성·가족 자전거 대여·다양한 시설 운영

장수군이 장수누리파크에 튤립 광장을 조성해 봄나들이 명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속되는 코

로나19로 야외에서 안전하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자전거의 인기가 열풍인 가운데 장수누리파크에서도 오는 18일부터 가족 자전거(2~3인용, 4~5인

용)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킥보드 등을 대여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하게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자전거는 누리파크 내에서 30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탑승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10시~17시까지이며, 누리파크 홍보관에서 무료로 대여 가능하다.

또한 식사와 체험,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누리파크 내 이츠레드더 카페 및 요리체험장, 장수밥상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리파크가 가족 관광객에게 안전 맞춤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이 장수누리파크에 튤립 광장을 조성해 봄나들이 명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안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한 긴급 교육

진안군은 12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인식 제고 및 가족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재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군은 양돈농가에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른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자료를 공유하고 가족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돈전문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대1로 농장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업인 '호응'

영농철을 맞아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하우스·밭 평탄 작업, 사료작물·벼 수확 등 고가의 농업기계 사용이 필요한 농작업을 농업인들에게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농촌사회의 일손부족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지난 2011년부터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작업 대행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작지가 무주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찾아가는 장터 건강증진센터 운영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축소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장터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 장터 건강증진팀 운영은 오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무주군 관내 4개 장터를 찾아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팀과 치매안심팀이 함께 매일 첫째 주에는 무주읍 반딧불 장터, 둘째 주에는 설천면 삼도봉 장터, 셋째 주에는 무풍면 대덕산 장터, 넷째 주에는 안성면 덕유산 장터에서 진행한다.

이 장터에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금연상담 및 홍보,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실시한다. 또 우울선별검사와 자살예방상담, 치매 바로알기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장터에서 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기초건강검사 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15일부터 새로운 양식 농지원부 발급

장수군은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21.10.14.)에 따라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며, 장수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중단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변경된 양식으로 발급이 이뤄지며, 온라인 발급은 5월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양식변경을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8월 18일부터는 명도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장수=고관호 기자